



[ 기관 탐방 ]

## 창립 20주년 맞은 한국산업간호학회

한국산업간호학회는 1990년 9월 26일 창립되어 지난 2010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김희중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회의원)가 초대회장을 역임하였고, 제2, 3대 회장은 윤순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제4, 5대 회장은 조동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 제6, 7대 회장은 전경자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8, 9대 회장은 김희걸 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0, 11대 회장은 김영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역임하였다.

금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12대 회장에는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김숙영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제1부회장, 서강녕 LG 디스플레이 구미공장 보건관리자가 제2부회장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산업간호학회는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산업간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왔다. 연 2회 ‘한국산업간호학회지’도 발간하여 산업간호에 관한 연구를 이끌어 왔다. 본 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등재 학회지로서 산업간호분야 전문 학술지이다. 또한 산업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산학 협동 산업간호 연수강좌 개최, 태국, 미국, 프랑스 등의 산업간호 전문가 초청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제 성인기에 접어든 한국산업간호학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3일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박영수)과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 MOU에서는 산업간호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강사 지원과 세미나 공동개최 등의 교류를 함께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산업간호학회는 매월 ‘산업간호포럼’을 개최하여 산업간호 이슈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회 산업간호포럼은 2011년 3월 18일에 개최되었는데, 이 세미

나에서 일본 동경 Ariake University의 Satori Kakemoto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의 산업간호제도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장은희 교수가 한국의 산업간호 교육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산업간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2회 산업간호포럼은 2011년 4월 22일 개최되었는데,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학회 회장이 '보건관리자 전 업종 확대 배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박영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이 토론을 하였다. 정혜선 회장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유해인자가 존재하므로 보건관리자를 전 업종으로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영수 원장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로서, 그동안 규제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는 5월 27일에는 한국산업간호협회와 공동으로 안심일터 만들기 보건관리자 전국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 보건관리자가 앞장 서서 내 직장 안심일터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면 산업간호사가 관리하는 사업장은 직무만족도가 향상되고, 사고와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편안한 직장이 될 것이다.

한국산업간호학회는 오는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직장여성의 안전보건과 저출산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 학술대회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저출산 대응 연속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채택된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직장여성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간호학회는 미래의 근로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캠페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한 민간단체 안전보건 협력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최근 대학축제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직장인이 되기 이전에 대학생부터 안전보건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본 학회 이사로 활동하는 간호대학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당 학교에서 대학생에 대한 안전보건 캠페인과 안전체험관 견학 등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간호학회가 금년에 가장 집중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는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그동안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되는 간호사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서도 간호사 면허만 소지하고 있으면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었으나 근로자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능력있는 전문가가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산업간호학회는 한국산업간호협회와 공동으로 보건관리자가 되기 이전에 산업보건에 대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한국산업간호학회의 활동에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간호학회 연락처 : 이성숙 간사 02-2258-7377, ohnursing@hanmail.net〉



〈한국산업간호학회와 산업안전보건교육원과의 MOU 체결〉



〈한국산업간호학회 산업간호포럼〉